

2010학년도 수시 일반학생전형(논술형) 자연계열

문항 1. 제시문 ㉠과 ㉡를 요약하고, 본인의 견해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시오.

<제시문 ㉠>

한국에서는 그만큼 유행의 속도가 빠르다. 농담뿐만 아니라 패션, 휴대폰, 노래, 책 등 모든 분야에서 어제까지 모두 열광하던 유행이 자고 나면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유행이 시작된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반드시 좋고 나쁨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이 빠른 시일에 좋은 유행을 쫓아가면 좋은 것이고, 나쁜 유행을 쫓아가면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저력과 기본적인 심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한다면, 이는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주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어 한다. 도로를 닦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이고, 회사를 차려서 영업을 시작할 때에도 ‘최단 기간’에 해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한다. 하다못해 자장면을 배달해도 ‘번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저명인사가 된다. 이런 습성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나의 형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 차를 타고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형은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이미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이 보기에는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만 같았던 모양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운전습관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누구 말처럼 ‘무법천지’는 아니다. 워낙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간격이 아주 좁아 보이기 는 하지만, 이는 세계의 모든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략)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폐단도 만만치 않지만, 세상 모든 일에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이 또한 치명적인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경쟁이 극심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급한 성미는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옛날에 어디선가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를 보고 혼자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 사람들의 운전 습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교통안전표어였는데, 지금은 그 낡은 표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모든 정보가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인터넷 세상에서 5분만 앞서가도 결과적으로 50년을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먼저 간다’는 말은 절대로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니 안심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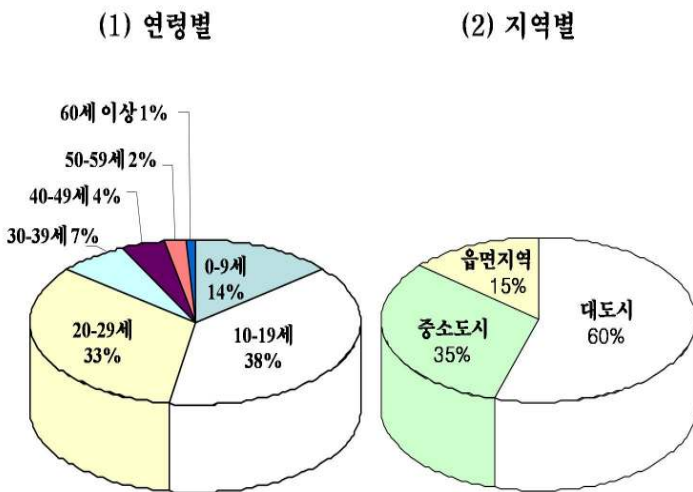
(나는 한국이 두렵다 <제프리 존스>)

<제시문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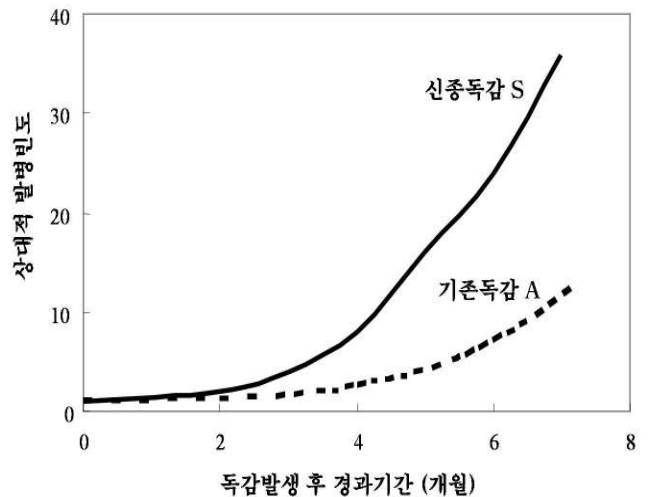
우리 한국인은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버릇이 있다. 물론 결과를 얻기 위해 일을 한다는 데는 동서양이 다를 바가 없다. 결과를 얻는 데 거쳐야 할 과정을 성실히 밟는 것을 과정주의라고 하고, 결과에 너무 집착해 과정을 조금만 밟거나 새치기하여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것을 결과주의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은 결과주의 편에 속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인은 무슨 일이든 빨리 할수록 미덕이요, 선이며, 가치를 이룬다. 잠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며, 심부름도 빨리 하고, 쇠뿔을 단김에 빼는 것은 모르나, 밥도 빨리 먹으려 하고, 공부도 빨리 하라 하며, 일도 빨리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인의 식사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됐는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의 저녁 식사시간은 보통 2~3시간이 상식이다. 그들은 식사 과정을 즐기기 위해 그 과정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키고 연장시킨 그 과정을 농도 짙게 즐긴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찬이 좋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15분 안에 후딱 먹어 치운다. 퐁퐁 끓여 놓은 설렁탕도 후후 불어가며 5분 만에 먹어 치운다. (중략) 도시계획이나 신항 주택지를 개발하는 데도 바로 눈앞만 보고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 서울의 간선도로를 넓히면서 10여 층짜리 고층 건물들을 헐어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건물들은 겨우 4, 5년 전에 허가받고 지어진 건물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포장해 놓은 도로 밑을 1년에 몇 번씩 파헤치는 것도 다반사가 돼있다. 좀 앞을 내다본다면 한 번 파헤쳤을 때 하수도며, 상수도며, 전선이며, 가스관이며 하는 지하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중략) 눈앞에 보이는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먼 훗날을 염두에 두질 않았던 경영 원칙이며 경제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결과주의의 결과는 빨리 얻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결과일 뿐이다. 반면 과정주의의 결과는 더디게 얻어진다는 단점은 있으나 일단 얻어 놓으면 영속되는 결과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처해 있는 흥망의 갈림길에 있다면 경영 철학을 결과주의로부터 과정주의로 전환시키 결과주의로 일관되게 나가느냐에 있다고 본다. (한국인, 이래서 못산다 <이규태>)

문항 2.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종독감 S의 발병 특징 및 발병자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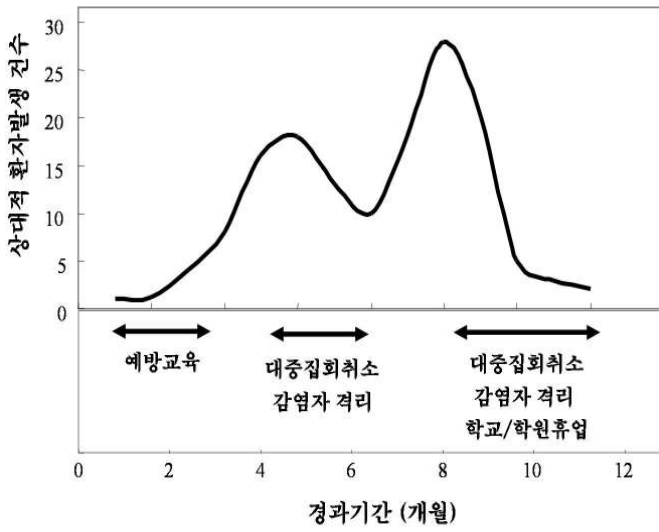
[그림 1] 신종독감 S 발병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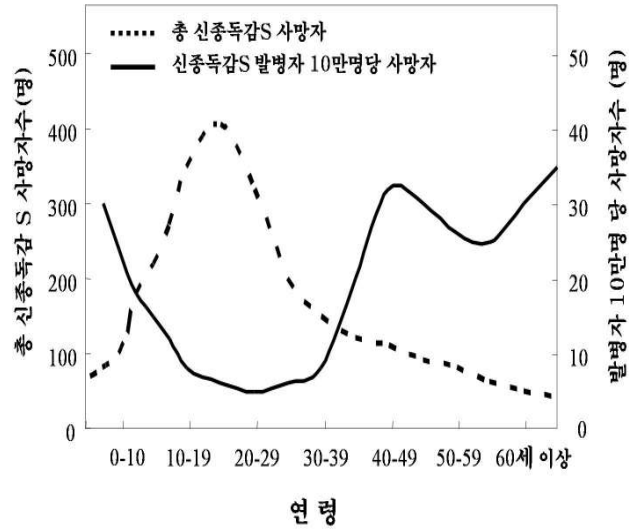
[그림 2] 독감 유형별 전염성



[그림 3] 각종 조치에 따른 신종독감 S 발병자 증감 추세



[그림 4] 연령별 신종독감 S 사망자 현황



※ 화살표는 예방교육, 학교휴업, 집회취소, 감염자 격리등의 조치기간을 의미함

<표 1> 신종독감 S 사망자의 합병증 현황

합병증	간, 신장 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 호흡기 질환	당뇨 등 대사질환	암, 종양, 면역저하	기타 전염성 질환	미확인
비율(%)	3.2	3.8	30.2	42.6	5.7	8.1	6.4